

칸 영화제의 글로벌 플랫폼화: 황금종려상을 통해 본 다양성 확장과 서사의 전환

Global Platformization of the Cannes Film Festival: Diversity Expansion and Narrative Shifts through the Palme d'Or

김하은*, 오송희*, 유지원*, 김서현*, 문성민**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Ha-Eun Kim(haeunkim0@ajou.ac.kr)*, Song-Hee Oh(oshee@ajou.ac.kr)*,
Ji-Won Yoo(yjw6941@ajou.ac.kr)*, Seo-Hyeon Kim(bibiana617@ajou.ac.kr)*,
Seongmin Mun(seongminmun@knu.ac.kr)**

요약

본 연구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반영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1973년부터 2024년까지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수상 감독의 성별·국적·연령, 심사위원 구성, 그리고 수상작 장르 및 다국어 시놉시스를 수집·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토픽 모델링(LDA)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점진적인 다양성 확대가 관찰되었다. 거시적·사회 비판적 주제에서 미시적·감정적 주제로의 서사 전환 또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칸 영화제가 시대·사회적 가치와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영화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 중심어 : | 칸 영화제 | 황금종려상 | 다양성 | 토픽 모델링(LDA) | 시놉시스 | 코호트 분석 | 성별 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volving trends of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its reflection of 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Focusing on the Palme d'Or-winning films from 1973 to 2024, the study collected data on the gender, nationality, and age of directors, jury composition, and multilingual synopses. Analytical method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topic modeling (LDA). The results show increased diversity since the 2000s and a narrative shift from macro-level social themes to micro-level emotional portrayals. The study suggests that Cannes serves as a global platform reflecting social values and diversity, offering a framework for film festival research.

■ keyword : | Cannes Film Festival | Palme d'Or | Diversity | Topic Modeling (LDA) | Synopsis | Cohort-based Analysis | Gender Analysis |

* 이 논문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3.0(HK3.0)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6B5A02004239).

접수일자 : 2025년 06월 12일

수정일자 : 2025년 07월 04일

심사완료일 : 2025년 07월 04일

교신저자 : 문성민, e-mail : seongminmun@knu.ac.kr

I. 서론

칸 영화제는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며, 국제 영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1946년 설립된 이후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은 칸 영화제는 현재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서 그 영향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장 빠른 길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하는 것이고,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것이 그 다음 길”이라는 말처럼, 칸 영화제의 위상은 절대적이다[1].

프랑스가 영화 종주국으로 자리한 것과 칸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한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 발명과 멜리에스의 선도 이후, 프랑스는 르네 클레르와 장 코кто를 거쳐, 로베르 브레송, 장 뤽 고다르, 프랑수아 트뤼포, 에릭 로메르 등 누벨 바그를 중심으로 예술 영화 강국으로 발전해왔다[2]. 이러한 배경에는 영화를 단순한 오락 상품이 아닌, 문화 예술의 일부이자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산업에 개입해온 프랑스 정부의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3]. 프랑스는 미국의 자유시장 원칙에 맞서 ‘문화적 예외’ 개념을 도입하여 영화를 일반 산업과 구분하였고, 강력한 영화 지원 기관인 CNC(국립영화센터)를 설립해 자국 및 유럽 영화의 정체성을 지켜왔다[4]. 또한 ‘빈국 영화 발전 지원 프로그램(ADCSud)’을 통해 영어 등 타 언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영화도 지원하며 영화의 다양성 확보에 힘써왔다[1].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프랑스 영화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칸 영화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베니스 영화제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반발로 프랑스 정부는 독립적인 영화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당시 문화부 장관이던 앙드레 말로를 중심으로 칸 영화제를 설계하였다. 이후 CNC가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고 칸 시에서 그에 이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5][6]. 나아가 프랑스 정부는 칸 영화제를 문화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그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처럼 칸 영화제는 정부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프랑스가 보호하고 육성해온 예술로서의 영화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6].

칸 영화제가 지닌 영향력은 단순히 영화 산업의 예술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정치·사회적 맥락에서도 두드러진다. 칸은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을 조명해왔다. 예컨대, 1999년 발생한 콜롬비아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룬 거스 밴 샌트 감독의 <엘리펀트>(2003)와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2004)은 각각 제56회[7],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8].

황금종려상(Palme d'Or)은 베를린의 황금곰상, 베니스의 황금사자상과 함께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히며, 매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단 한 편의 최우수 작품에만 수여된다[9]. 이 수상작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비공개 공간에서 심사위원단의 장시간 토론을 거쳐 선정되며, 칸 영화제가 지닌 심미적·정치적 성향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10]. 황금종려상은 단순한 예술적 평가를 넘어 시대정신과 영화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감독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수상작을 분석하는 것은 칸 영화제가 주목하는 담론과 예술적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칸 영화제는 사회적 이슈와 긴밀히 연결된 채 시대정신을 반영해온 공간이며, 단지 예술적 성취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영화 산업과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화제로 기능해왔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칸 영화제를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와 비교하거나 특정 영화의 칸 영화제 진출 의미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1][11]. 또한 영화제 운영 방식이나 칸 영화제를 중심으로 한 특정 주제(예: 영화제 기록물 관리 방안[12]), 혹은 수상 감독 연구[13]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칸 영화제의 핵심 수상 부문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의 시기별 특징 변화를 분석하여, 영화제가 반영하고자 하는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73년 칸 영화제 개막 이후부터 2024년까지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 통계, 빈도 분석, 평균 비교(t-test), 키워드 분석(토픽 모델링)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그 변화 양상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 가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질문 1 : 어떤 작품들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가?
- 2) 연구 질문 2 : 칸 영화제는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 3) 연구 질문 3 : 칸 영화제 수상작의 시놉시스에는 어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칸 영화제에 나타난 시대정신의 변용

칸 영화제는 세계 영화 산업의 주축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칸 영화제에 나타난 시대정신의 변용을 조명하고자 한다.

Olivier Thévenin의 연구(2021)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칸 영화제의 발전 양상을 통해 작가주의 영화의 부상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칸 영화제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변화를 분석하며, 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자리 잡고 작가주의 및 독립영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나아가 영화제를 사회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연구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사회학적 접근에 기반한 통시적 분석을 통해 칸의 조직 구조와 병렬 섹션(Quinzaine des Réalistes, Cinéfondation 등)의 역할 변화를 추적하였다. 또한 Bourdieu, Luhmann, Latour, Castells 등의 사회이론과 Lucien Karpik의 '독특성의 경제' 개념을 접목해 영화제 내부의 평가 메커니즘과 가치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칸 영화제는 작가주의 영화와 상징 자본이 유통되는 복합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세계 영화 담론의 중심으로서 유럽 영화제의 위상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4].

또한 Julia Grace Wood의 연구(2022)는 칸 국제영화제의 초기(1946~1968) 정치적 의제를 조명하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 정치적으로 분열된 국가들 간의 초국가적 연대를 영화제가 어떻게 증진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문화정책과 영화 지원 제도(예: '품질 프리미엄', 'avance sur recettes')가 칸 영화제 공식 선정작과 운영에 미친 영향, 그랑프리 수상작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단의 정치적 요소, 그리고 수상작이 영화제의 의제에 기여한 바를 탐색하였다. 연구는 프랑스 공식 선정작을 주제·서사·캐릭터·제작국 배경을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맥락에서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49년 수상작인 *The Third Man*처럼 전쟁의 참혹함과 사회적 혼란을 묘사하며 반전 및 평화주의 정서를 담은 영화들이 다수였음이 드러났다. 칸 영화제는 예술이라는 틀을 통해 전쟁의 공포를 환기하고 평화와 국제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프랑스의 문화외교와 국가 위상 강화에 기여했음을 시사하였다[15].

마지막으로 황영미의 연구(2013)는 칸, 베를린, 베니스의 세계 3대 국제영화제가 각기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고유한 정체성과 지향점을 형성해왔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 영화제의 설립 목적과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수상작의 주제와 제작국의 문화적 맥락을 분석한 결과, 칸 영화제는 독창성과 작가주의를 중시하며 다양한 국가의 사회적 이슈를 예술적 방식으로 성찰하는 작품들을 주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를린 영화제는 인권과 정치적 참여에 초점을 맞췄고, 베니스 영화제는 운영 방식과 상영 환경에서 실용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는 세계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주목받기 위해서는 각 영화제의 특성과 담론 구조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획과, 다양성·보편성·사회적 메시지를 균형 있게 갖춘 작품 제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1].

2. 칸 영화제의 사회적·문화적 역할

이와 같이 영화제가 각 시대의 사회·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하고, 그 성격과 범위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본 장에서는 영화제의 기능 연구를 통해 칸 영화제가 수행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김중국의 연구(2014)는 영화제가 학문적으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동인, 정치적 역동성, 이데올로기적 의제 등 다양한 층위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는 서구 유럽 영화제를 중심으로 영화제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분석하며, 영화 내셔널리즘 모델, 영화제 펀드의 역할, 영화제 노동자들의 조건, 영화제 프로그래머의 큐레이터적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영화제가 전시에 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이후 내셔널 시네마를 전시하는 플랫폼으로서 정치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로테르담 영화제의 후버트 발 펀드를 통해, 영화제 펀드가 개발도상국 영화를 지원하면서도 서구 중심의 문화적 위계를 재생산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화제 노동의 불안정성과 열악한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얽힘도 주목하면서, 영화제를 단순한 문화 이벤트가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다[16].

정지은·정인선의 연구(2022)는 영화제의 사회문화적 기능 가운데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를 주목하였다. 해외 영화제의 예술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프랑스 CNC의 영화교육 정책과 비교하며 한국의 학교 밖 영화 교육과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어 토론토 국제영화제, '나의 첫 번째 영화제'(프랑스), 도쿄 및 나라 국제영화제의 사례를 분석하며, 영화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운영 방식, 참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연구는 영화제가 관객 개발과 미래 영화인 양성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 성장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7].

Cécile Krysz의 연구(2022)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한 유럽 영화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분석하며, 영화제가 문화적 매개체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하였다. 프랑스의 다양한 지역 영화제를 사례로, 영화제가 지역 문화 활성화, 관객 개발, 산업 연계에 있어 수행하는 다층적 기능을 고찰하였다. 특히 파리 단편영화제와 상젤리제 영화제를 중심으로 영화제의 운영 구조, 재정, 관객 구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영화제가 특정 주제·장르·지역에 집중하며 점점 세분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온라인 영화제의 확산으로 인해 영화제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영화제는 영화 상영을 넘어서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관객을 포용하며, 영화 유통 및 제작 과정에까지 개입하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18].

III. 연구 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칸 영화제가 시대적 가치와 문화적 담론을 반영해온 국제 영화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황금종려상 수상작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데이터의 변화양상을 통해 영화제가 추구해온 미학적·사회적 지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및 관련 인물에 대한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정제하였다.

우선, 연구 질문 1과 2에 해당하는 감독 및 심사위원단의 배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973년부터 2024년까지 52개년 동안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감독 62명의 성별, 국적, 나이 정보를 확보하였다. 심사위원단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461명의 성별, 국적, 연령, 직업 정보를 수집하였다. 해당 정보는 나무위키 기반의 구조화된 웹 페이지를 크롤링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으며, 연령은 해당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연도의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일부 결측 데이터는 구글, 네이버, 위키피디아 등의 신뢰 가능한 공개 출처를 통해 보완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하였다.

연구 질문 3에 해당하는 수상작의 내러티브 분석을 위해, 수상작의 시놉시스 데이터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확보하였다. 각각 네이버 영화, 위키백과, 프랑스 영화 포털 사이트인 알로씨네(AlloCiné[그림 1]) 등에서 데이터를 취합하였으며, 동일 작품에 대해 다국어 시놉시스를 확보함으로써 언어별 서술 차이와 서사적 강조점의 차이도 분석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수상작의 장르 정보는 네이버 영화 기준으로 정리하여 작품 특성과 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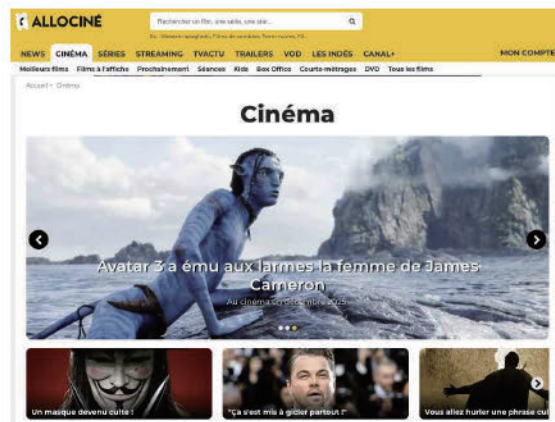


그림 1. 알로씨네, 프랑스 영화 포털 사이트

이후 수집된 데이터는 R 프로그래밍 언어(version 4.4.0)를 기반으로 전처리 및 정제 과정을 거쳤다. readxl 패키지의 read_excel() 함수를 통해 엑셀 데이터를 불러온 후, dplyr 패키지의 mutate() 및 ifelse() 함수로 조건 처리, stringr 패키지의 str_trim()으로 공백 제거를 수행하였다. 심표로 구분된 복합 값 처리에는 str_split()을 적용하였다. 이를 tidyr의 unnest() 함수와 결합하여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행 단위로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르 및 언어 변수 등 명목형 데이터는 다중 열로 분리하고, 필요한 변수를 재정의하여 [그림 2]와 같이 최종 분석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재구성하였다.

	A	B	C	D	E	F	G	H
	Année	Titre	Réalisateur	sexe	nationalité	âge	Synopsis	Drame
1	2024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54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	2023	Avatar: Le chemin de l'eau	James Cameron	M	États-Unis	55	Avatar, jeune xélop-éiste	1
3	2022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54	Avatar, jeune xélop-éiste	1
4	2021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53	Avatar, jeune xélop-éiste	1
5	2020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52	Avatar, jeune xélop-éiste	1
6	2019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51	Avatar, jeune xélop-éiste	1
7	2018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50	Avatar, jeune xélop-éiste	1
8	2017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9	Avatar, jeune xélop-éiste	1
9	2016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8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0	2015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7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1	2014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6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2	2013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5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3	2012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4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4	2011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3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5	2010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2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6	2009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1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7	2008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40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8	2007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9	Avatar, jeune xélop-éiste	1
19	2006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8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0	2005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7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1	2004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6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2	2003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5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3	2002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4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4	2001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3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5	2000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2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6	1999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1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7	1998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30	Avatar, jeune xélop-éiste	1
28	1997	Avatar	James Cameron	M	États-Unis	29	Avatar, jeune xélop-éiste	1

그림 2. 본 연구의 최종 데이터 형태

2.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세 가지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 독립표본 t-검정, 토픽 모델링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분석 방법은 분석 대상의 성격과 연구 질문의 목적에 따라 선택되었으며, 시계열적 흐름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연구 질문 1인 “어떤 작품들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1973년부터 2024년까지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들의 감독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통계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항목은 감독의 나이, 국적, 그리고 수상작의 장르였다. 이 분석을 통해 수상작 감독의 평균 연령, 성별 및 국적 분포, 장르별 빈도 등을 산출하였으며, 칸 영화제가 선호해온 영화 유형이나 인물상의 경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감독의 나이 분포는 칸 영화제가 중시하는 경력·연령대를 반영하며, 장르 분석은 예술성과 주제성이 강한 영화의 선호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연구 질문 2인 “칸 영화제는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답하기 위해, 칸 영화제의 다양성 관련 요소들의 시기별 변화를 중심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¹.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를 기준으로 전체 수상작을 두 개의 코호트 집단(2000년 이전 vs. 2000년 이후)으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은 프랑스 및 세계 영화계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을 반영한 것이다. 수상작의 감독 성별, 연령, 국적, 장르 등과 같은 변수들이 2000년을 기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칸 영화제 심사위원단의 구성(성별, 나이, 직업군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분석을 실시하여, 심사단의 다양성이 실제로 확대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칸 영화제가 영화의 심사와 선정 과정에서 얼마나 의식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해당 변화가 통계적으로도 뚜렷한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질문 3인 “칸 영화제 수상작의 시놉시스에는 어떤 시대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방대한 시놉시스 텍스트 자료에서 잠재적인 주제 구조를 추출하고, 이를

1 표본의 분산이 동질한 경우, 등분산 가정 하의 독립표본 t-검정(pooled t-test)을, 분산이 이질적인 경우 웰치(Welch)의 t-검정을 적용하였다.

통해 사회적·문화적 가치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기계학습 기반의 분석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확률 기반 모델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적용하여 수상작 시놉시스에 내재된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LDA 모델은 각 시놉시스가 여러 개의 주제(topic)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는 특정 단어들로 이루어진 확률적 분포라는 전제 하에 작동한다. 이를 통해 단어의 단순 빈도 분석을 넘어, 영화가 내포하는 깊이 있는 주제 구조를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1973년부터 2024년까지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들의 시놉시스를 불어 및 영어 원문 기준으로 수집하고, 불용어 제거, 소문자화, 표제어 추출, 특수기호 제거 등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전처리를 거친 텍스트는 문서-단어 행렬로 구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LDA 모델을 학습시켰다.

토픽 수(K)의 결정은 혼란도(perplexity)와 주제 일관성(topic coherence)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파이썬 기반의 Gensim 및 Spacy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구현되었다. 이후 각 수상작 시놉시스에 대해 주제별 확률 분포를 도출하고, 각 주제를 구성하는 핵심 단어들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때 추출된 토픽들은 단순히 단어 묶음이 아니라 당대 사회에서 중시되었던 가치, 갈등, 정체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토픽이 수상 연도에 따라 어떻게 출현하고 변화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특정 시점에 부각된 주제가 사회적 사건이나 담론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해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질문—‘어떤 작품들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가?’, ‘칸 영화제는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칸 영화제 수상작의 시놉시스에는 어떤 시대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가?’—에 답하고자 수집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 및 텍스트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작품들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가?

1973년부터 2024년까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탐색하고자, 수상작 감독의 나이, 성별, 국적과 함께 해당 작품의 장르 분포를 중심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R 언어(version 4.4.0)를 기반으로, dplyr 패키지를 통한 요약 통계량 산출과 ggplot2를 활용한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수상작 감독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 평균 연령은 약 49.3세(표준편차 11.7)로 나타났으며, 최연소 수상 감독은 26세, 최고령 수상 감독은 80세였다. 이는 칸 영화제가 경력 있는 중장년층 감독을 주로 수상 대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특정 시기에는 젊은 신진 감독의 실험적 작품 또한 포용해 왔음을 시사한다. [그림 3]은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들의 나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막대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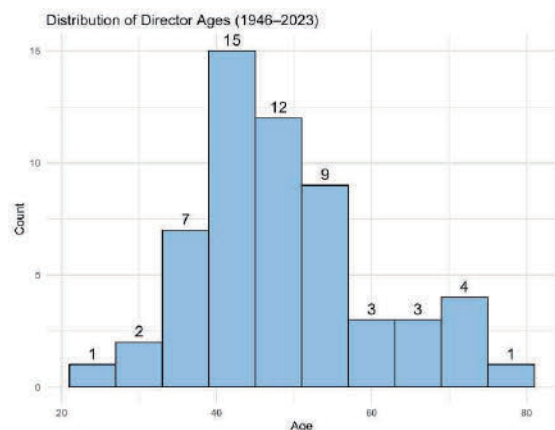


그림 3.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들의 나이 분포

감독의 성별 구성은 남성 감독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여성 감독의 수상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영화 산업 전반의 구조적 편향성을 반영하며, 칸 영화제가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 시선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그림 4]는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들의 성별 분포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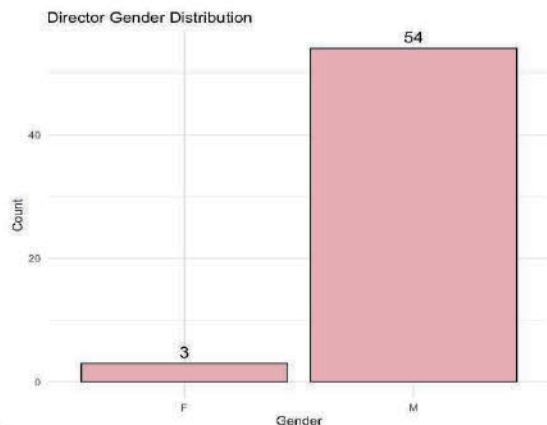


그림 4.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들의 성별 분포

국적 측면에서 분석된 결과, 총 23개국 출신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및 서구권 국가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칸 영화제가 지리적·정치적 중심성과 산업 인프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특정 국가의 작품을 주로 조명해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림 5]는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들의 국적 빈도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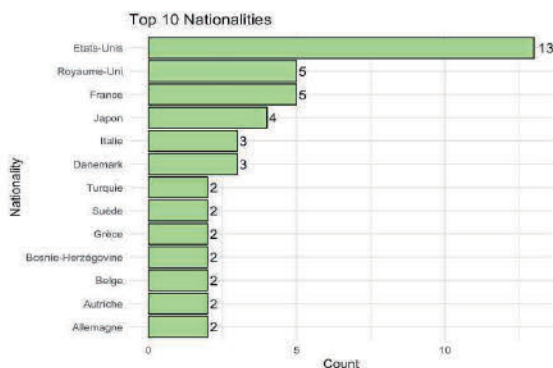


그림 5.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들의 국적

수상작의 장르에 대한 분석은 장르별 더미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빈도 합산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많이 수상한 장르는 드라마였고, 그 뒤를 이어 로맨스, 스릴러, 다큐멘터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칸 영화제가 예술성과 서사성을 중시하는 영화, 특히 인간 내면과 사회적 갈등을 조명하는 작품에 주목해왔음을 반영한다. [그림 6]은 황금종려상 수상작들의 장르 분포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2. 칸 영화제는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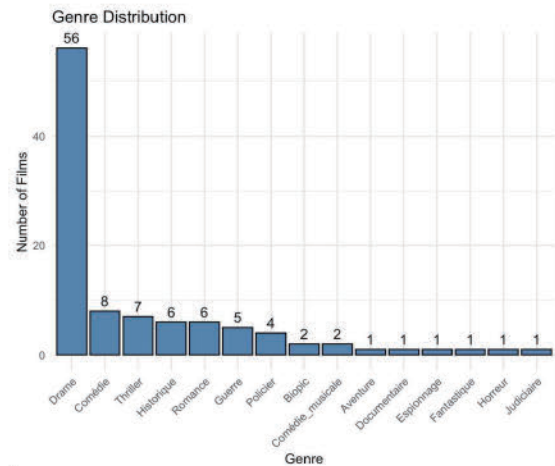


그림 6. 황금종려상 수상작들의 영화 장르 분포

칸 영화제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 및 심사위원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0년 이전과 이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기준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 영화계 전반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한 시점을 반영한 것이다.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의 정보를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분석한 결과인 [표 1]을 보면, 수상 감독의 평균 연령은 2000년 이전 45.79세에서 2000년 이후 54.12세로 증가하였으며($t = 2.78$, $p\text{-value} = 0.007$), 성별 비율에서도 여성 감독의 비중이 3%에서 8%로 상승하여 성별 다양성이 다소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국적 측면에서는 2000년 이전에는 미국(Etats-Unis, 27%), 일본(Japon, 9%), 영국(Royaume-Uni, 9%) 국적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미국(20%) 외에도 프랑스(France, 16%)와 오스트리아(Autriche, 8%) 등 유럽 국가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장르 분포에서는 양 시기 모두 드라마(Drame)가 가장 높은 비중(55% → 58%)을 차지하였으며, 코미디(Comédie)와 범죄물(Policier) 장르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칸 영화제가 일정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성별 및 국적의 분포 변화는 영화제의 포용성과 심미적 기준의 진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들의 인구 통계 변화 양상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나이	(평균) 45.79	(평균) 54.12
성별	여성(비율) 0.03 남성(비율) 0.96	여성(비율) 0.08 남성(비율) 0.91
국적	Etats-Unis(비율) 0.27 Japon(비율) 0.09 Royaume-Uni(비율) 0.09	Etats-Unis(비율) 0.16 France(비율) 0.16 Autriche(비율) 0.08
영화 장르	Drame(비율) 0.55 Comédie(비율) 0.06 Policier(비율) 0.03	Drame(비율) 0.53 Comédie(비율) 0.09 Policier(비율) 0.04

황금종려상 심사위원단의 정보를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연령은 2000년 이전 48.37세에서 2000년 이후 51.78세로 증가하여 영화제가 보다 경륜 있는 인물을 심사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t = -3.27$, $p\text{-value} = 0.001$). 성별 구성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여성 비율은 2000년 이전 25%에서 2000년 이후 44%로 상승하면서 성별 다양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국적 분포 측면에서는 2000년 이전에는 프랑스(26%), 미국(13%), 이탈리아(10%)의 순으로 나타났고, 2000년 이후에는 프랑스(18%)와 미국(15%)의 비중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비중은 7%로 다소 감소하였다. 직업적 배경에 있어서도 구성 변화가 감지되었는데, 2000년 이전에는 감독(Réalisateur, 19%), 시나리오 작가(Scénariste, 14%), 배우(Acteur, 14%)가 주요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감독(27%), 배우(26%)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시나리오 작가의 비율은 1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칸 영화제가 심사위원단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직업군, 연령 등 다양한 요소에서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영화제의 심사 기준에 내재된 문화적 포용성과 다층적 시각의 확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 황금종려상 심사위원들의 인구 통계 변화 양상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나이	(평균) 48.37	(평균) 51.78
성별	여성(비율) 0.25 남성(비율) 0.74	여성(비율) 0.44 남성(비율) 0.55
국적	France(비율) 0.26 Etats-Unis(비율) 0.13 Italie(비율) 0.10	France(비율) 0.18 Etats-Unis(비율) 0.15 Italie(비율) 0.07
직업	Réalisateur(비율) 0.19 Scénariste(비율) 0.14 Acteur(비율) 0.14	Réalisateur(비율) 0.27 Acteur(비율) 0.26 Scénariste(비율) 0.11

3. 칸 영화제 수상작의 시놉시스에는 어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가?

[그림 7]과 [표 3]은 칸 영화제 수상작의 시놉시스에 대해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로, 2000년 이전과 이후 두 시기로 나누어 주요 토픽의 구성 단어와 그 확률 분포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에 따라 시놉시스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Topic 1은 양 시기 모두 “vie(삶)”, “femme(여성)”, “faire(하다)” 등의 단어가 중심을 이루며, 삶의 흐름과 개인의 내면적 경험, 특히 여성의 정체성이나 역할 변화에 대한 서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jeune(젊은)”, “famille(가족)”, “fils(아들)” 등 세대 간 관계와 가족 중심의 정서가 더욱 뚜렷하게 반영되었으며, “épouse(아내)”, “elle-même(그녀 자신)” 등의 등장으로 여성 주체성의 부상도 읽힌다. 이는 현대 칸 수상작들이 개인 서사 속에서의 젠더 정체성,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Topic 2에서는 2000년 이전에는 “histoire(역사)”, “contre(대립)”, “retour(귀환)”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역사적 회고와 저항, 회복의 서사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반면 2000년 이후에는 “jour(하루)”, “daniel”, “mère(어머니)” 등의 일상성, “comme(처럼)” 같은 관계적/비유적 서술 구조가 강조되며, 이는 최근 수상작들이 보다 비정치적이고 감성적인 개인사로 주제를 전환해 왔음을 보여준다.

Topic 3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mort(죽음)”, “trois(셋)”, “lutte(투쟁)” 등이 포함되어 죽음, 투쟁, 사회적 갈등에 대한 서사가 강하게 나타났으나, 2000년 이후에는 “ville(도시)”, “petite(작은)”, “musique(음악)”, “fait(사실)” 등의 단어를 통해 도시적 공간, 문화적 정체성, 예술적 표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칸 영화제가 사회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일상의 미학, 도시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보다 다양하게 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요약하면, 칸 영화제 수상작의 시놉시스는 2000년 이전에는 비교적 거시적·사회비판적 담론(전쟁, 저항, 죽음, 역사)을 주로 반영했다면, 2000년 이후에는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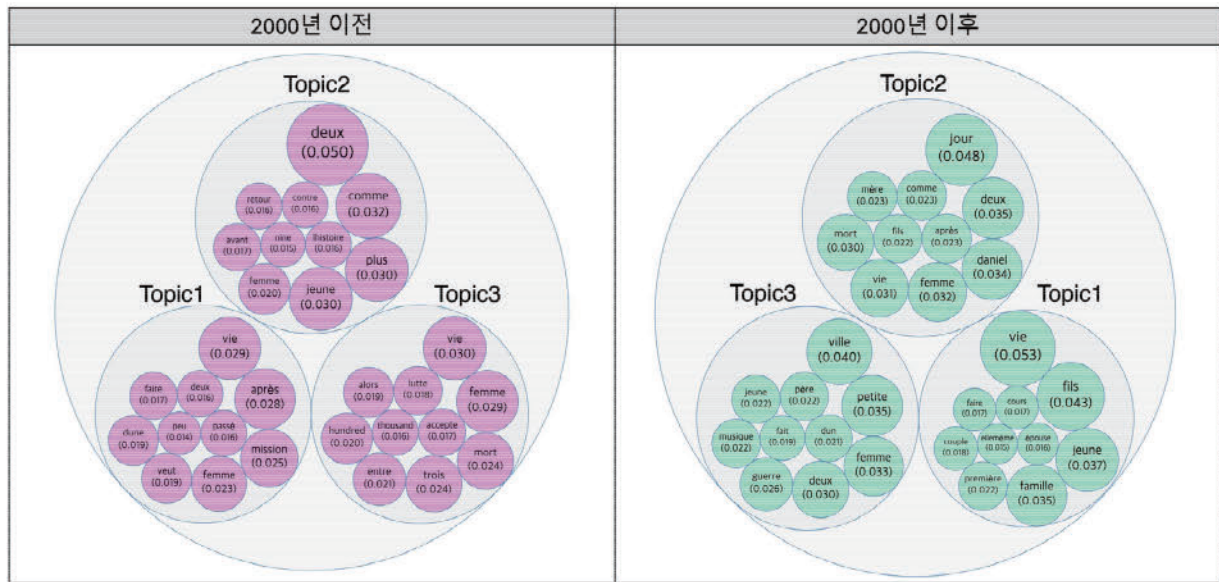


그림 7. 수상작 시놉시스에 대한 Topic별 확률 분포 시각화

의 삶, 젠더, 가족, 예술 등 미시적·정서적 서사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칸 영화제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서사적 복잡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 수상작 시놉시스에 대한 Topic별 확률 분포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Topic1	vie 0.029 après 0.028 mission 0.025 femme 0.023 dune 0.019 veut 0.019 faire 0.017 passé 0.016 deux 0.016 peu 0.014	vie 0.053 fils 0.043 jeune 0.037 famille 0.035 première 0.022 couple 0.018 cours 0.017 faire 0.017 épouse 0.016 ellemême 0.015
Topic2	deux 0.050 comme 0.032 jeune 0.030 plus 0.030 femme 0.020 avant 0.017 histoire 0.016 contre 0.016 retour 0.016 nine 0.015	jour 0.048 deux 0.035 daniel 0.034 femme 0.032 vie 0.031 mort 0.030 après 0.023 comme 0.023 mère 0.023 fils 0.022
Topic3	vie 0.030 femme 0.029 trois 0.024 mort 0.024 entre 0.021 hundred 0.020 alors 0.019 lutter 0.018 accepte 0.017 thousand 0.016	ville 0.040 petite 0.035 femme 0.033 deux 0.030 guerre 0.026 père 0.022 jeune 0.022 musique 0.022 dun 0.021 fait 0.019

V. 논 의

본 연구는 칸 영화제가 현대화됨에 따라 다양한 개인과 일상의 형태를 포용하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연대기적 한정성, 일부 변수의 결측값 존재, 질적 연구 비중이 미흡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황금종려상 수상작의 데이터는 1973년부터 2024년까지의 52개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 세기에 걸친 시계열적 분석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황금종려상(Palme d'Or)은 제1회 칸 영화제가 개최된 1946년부터 1954년까지 '국제 영화제 그랑프리(Grand Prix du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라는 명칭으로 수여되었으며, 1955년부터 1963년까지는 '황금종려상(Palme d'Or)'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64년부터 1974년까지 다시 '국제 영화제 그랑프리'로 환원되었다가, 1975년부터 현재까지 '황금종려상'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황금종려상의 수상작에 대한 데이터는 1946년부터 1972년까지 27개년을 추가로 본 연구와 동일한 수집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위 데이터를 반영한 후 동일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수상작 전체로 연구 범위가 확장된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사위원단 데이터 중 '나이'에 해당하는 D열에서 일부 결측값이 존재한다. 이는 해당 인물의 출생연도가 칸 영화제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물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키피디아 및 인물 관련 기사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검색을 시도하였으나 저조한 인지도 혹은 과거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값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측값은 전체 462행의 데이터 중 4개에 해당하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보다 정밀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위해 해당 결측값은 European Film Academy(EFA) 또는 Société des Réalisateurs de Films(SRF)와 같은 기관에의 문의 및 이에 따른 추가 확보를 통해 별도로 검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황금종려상 수상작의 감독과 해당 연도 심사위원단의 인적 사항을 명목형 변수로 전환하여 빈도 분석 및 t-검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각 연도별 사례 연구를 통한 심층적 고찰이 미비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통해 시놉시스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의 변화 양상을 2000년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나, 반영된 변화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질적 연구의 비중이 양적 연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관련된 사회학적 연구를 결합하여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칸 영화제의 연구 가치를 확장하였고 선행 연구와의 관련성 검증 등을 통해 타 연구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칸 영화제의 전반적인 성격과 통시적 변화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질적 접근에 집중된 이전 연구들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영화제 관련 문화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수상작의 경향성과 심사위원단의 구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칸 영화제가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문화 데이터 기반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

둘째, 황금종려상 수상작의 시놉시스에 나타난 주제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영화제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하였다. 단순 단어 빈도 수 집계가 아닌 LDA 모델을 사용해 추출한 값은 영화 연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영화 연구는 영화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 메시지를 탐구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각 집단의 토픽 별 구성 단어 확률 분포를 수량 값으로 제공하면 영화 주제의 구조적 특성과 시대별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의 부각 정도와 영화 서사의 경향성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시놉시스 텍스트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한 데이터 기반 자료를 형성하여, 영화 주제 분석의 계량화와 자동화된 의미 탐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영화제와 사회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변화가 영화제의 구성과 수상작의 주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문화 데이터를 통해 사회 변화를 해석하려는 연구의 분석 틀을 형성하였다. 칸 영화제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복잡다단한 개인의 형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페미니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미투 운동이 전개되며 여성 감독의 비중이 2000년을 기준으로 3%에서 8%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1]. 또 수상작 중 주제적이고 개인적인 여성의 서사를 반영하는 작품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담론은 영화제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상호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칸 영화제가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현상을 일정 부분 반영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Julia Grace Wood(2022), 황영미(2013), Cécile Krysz(2022)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선행 연구들은 칸 영화제가 사회·정치적 맥락과 이슈를 담아내며 영화 상영을 넘어서는 다층적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함을 밝히고 있다. 또 이나라의 연구(2021)에서 지적한 바인 2000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에 따른 여성주의 영화 연구 대두 현상은 본 연구가 확인한 2000년 이후 수상 감독과 심사위원 구성의 여성 비율 증가와 일치한다[19].

VI. 결 론

본 연구는 세계 3대 영화제로 굳건히 자리한 칸 영화제의 규모와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 평가의 반영과 그 양상을 황금종려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며 칸이 조명하는 주제 의식이 더욱 다양화되고, 개인화되었다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칸 영화제는 일정한 특성을 가진 영화에 지속적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여했음을 알 수 있다. 기술 통계량 분석을 통해 중견 감독의 작품, 남성 감독의 작품, 그리고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의 작품, 드라마 장르의 작품이 황금종려상 수상작 중 상당한 비율(각 15, 54, 23, 56건)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칸이 고유한 예술 세계를 가진 작품, 남성의 시선을 반영하는 작품, 강력한 문화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형성된 작품, 예술적 서사를 가진 개인적이고 심미적인 작품을 선택해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칸 영화제는 2000년 이후 다양성이 대두되는 사회 변화에 발 맞춰 그 담론과 가치의 전환을 수상작 선정과 심사위원단 구성을 통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작품 <디판>은 망명하는 이민자가 주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통해 주류 사회 밖 소수자의 다양성을 다룬다[20][21]. 또 2017년에 시작된 미투 운동은 2018년 칸에서 여성 영화인 항의 사건으로 이어졌고[22], 티 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와 서명을 이끌어냈다[23]. 미투 운동의 영향은 조직위원회와 작품 선정 위원회, 그리고 심사위원단의 구성에서 눈에 띄게 드러난다. 성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영화제 조직위원회 전체 인원 974명 중 468명을 여성으로 구성해 전체의 48%를 유지하고 작품 선정 위원회의 여성 위원과 남성 위원을 동수로 각 4명씩 구성, 경쟁 부문과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도 마찬가지로 각 4명, 2명씩 동수로 구성하였다[24].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2000년 이전 코호트 집단에서는 심사위원단 중 여성의 비율이 22%였으나 2000년 이후 코호트 집단은 그 비율이 44%로, 유의미하게 사회 흐름을 반영하며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칸 영화제를 대표하는 황금종려상 수상작은 시대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예술 사조는 자전적 예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사람들은 구조나 이념보다 평범하고 진정성을 가지는 주제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다[25].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개인에 대한 존중이 이 시대의 이념적 가치로 떠올랐다.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담고 있는 주제도 그와 같이 움직였다. 2000년 이전 집단에서는, Topic 1의 “vie(삶)”, “faire(하다)”, Topic 2의 “histoire(역사)”, “contre(대립)”, Topic 3의 “mort(죽음)”, “lutte(투쟁)” 등의 주제어가 읽혀 세계의 변화와 집단적 가치, 구조적 가치가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집단에서는 Topic 1의 “jeune(젊은)”, “famille(가족)”, “elle-même(그녀 자신)”, Topic 2의 jour(하루)”, “mère(어머니)”, Topic 3의 “ville(도시)”, “petite(작은)”, “musique(음악)” 등이 새로 부상하며 주제적인 여성상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개인의 내면으로 둘러진 시선이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칸 영화제는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과 그 속에서 대두되는 다양성 증진의 필요성을 예술로서 투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금종려상 수상작과 그 선정 과정에 기여하는 심사위원단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동태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칸이 다양성 수용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젠더를 비롯하여 개인적 삶과 그 특성의 포용 범위를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칸 영화제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가진 대상을 인식하고, 연구 기반을 다짐으로써 사회학적 접근이 결합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칸 영화제는 언제나 한 시대의 재현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수원, “칸영화제에서의 흑아프리카 영화 상영이 갖는 의미,”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46권, pp.123-152, 2015.
- [2] 안지혜, “문화로서의 영화 : 프랑스문화정책의 이념을 통해 본 영화정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4호, pp.389-413, 2008.

- [3] 김선아, “미디어 융합 시대 영화 지원체계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프랑스 CNC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pp.601-613, 2024(5).
- [4] 김현성, “프랑스 국제공동영화제작 산업과 정책,”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2010년 가을호, 제33권, pp.577-600, 2010.
- [5] <https://magazine.sfac.or.kr/html/view.asp?CateMasterCd=300&CateSubCd=3260&PubDate=202306, 2025.03.18>.
- [6] <https://www.gqkorea.co.kr/2023/11/15/2024년-국내외-영화제-육성-예산이-50퍼센트-삭감된/>, 2025.03.18.
- [7] <https://en.unifrance.org/news/467/cannes-2003-award-winners>, 2003.05.26.
- [8] <https://en.unifrance.org/news/634/cannes-2004-awards>, 2004.05.24.
- [9] <https://www.onmanorama.com/entertainment/entertainment-news/2024/05/27/cannes-2024-film-festival-what-are-grand-prix-palme-d-or-awards.html>, 2024.05.27.
- [10] F. Gimello-Mesplomb and L. Latil, “Une politique du cinéma : la sélection française pour Cannes,” *Protée. Revue internationale de théories et de pratiques sémiotiques*, Vol.31, No.2, pp.17-28, 2003.
- [11] 황영미, “세계 3대 국제영화제 특성과 한국영화제의 과제 연구,” 사고와표현, 제6권, 제1호, pp.203-236, 2013.
- [12] 김현태, 김진, 이정은, “영화제 기록물의 기록관리방안 연구 - 칸 영화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 아카이브지, 제6권, 제1호, pp.25-49, 2023.
- [13] 박성훈, *장 피에르 다르덴과 뤼크 다르덴 영화에 나타난 스타일 연구 : 서레이드 기법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4] O. Thévenin, “Le Festival de Cannes et la montée du cinéma d’auteur à l’ère de la mondialisation,” *Loisir et Société / Society and Leisure*, Vol.44, No.1, pp.37-46, 2021.
- [15] J. G. Wood, *Politics and War in the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 Analysis of the Festival’s Unifying Agenda*, Honors Theses, 2750, 2022.
- [16] 김중국, “서구유럽 영화제의 사회정치적 맥락,” 언론학 연구, 제18권, 제1호, pp.31-49, 2014.02.
- [17] 정지은, 정인선, “해외 영화제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용 사례연구,” 영화연구, 제91호, pp.263-290, 2022.
- [18] C. Krys, *La multiplicité des festivals de cinéma aujourd’hui en France : complexifications d’un dispositif pluriel*, Art et histoire de l’art, 2021.
- [19] 이나라, “아녜스 바르다 영화의 목소리 연구,” 프랑스 어권 문화예술연구, 제77권, pp.99-123, 2021.
- [20] 이선우, “자크 오디아르의 <리스트 앤 본>에 나타난 몸과 권력의 관계,” 영화연구, 제82호, pp.309-334, 2019(12).
- [21] 이선우, “동시대 프랑스 영화에 재현된 이민자와 프랑스인의 관계 맺기 양상,” 프랑스문화연구, 제38권, 제1호, pp.365-394, 2018.
- [22] <https://www.leparisien.fr/laparisienne/actualites/cannes-2018-82-femmes-se-tiennent-sur-ces-marches-12-05-2018-7712406.php>, 2024.04.15.
- [23] <https://www.24heures.ch/parite-femmes-hommes-cannes-signe-une-charte-111166754972>, 2024.04.15.
- [24]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03/0009236151>, 2025.03.18.
- [25] 아니에르노 저, 이재룡 역,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글 쓰기, 단순한 열정*, 문학동네, 2012.

저 자 소 개

김 하 은(Ha-Eun Kim)

준회원



■ 2021년 3월 ~ 현재 :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관심분야> : 불어불문학, 프랑스 영화, 데이터인문학, 데이터 시각화, 문화콘텐츠, 전산언어학

오 송 희(Song-Hee Oh)

준회원



- 2022년 3월 ~ 현재 :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관심분야〉 : 불어불문학, 데이터인문학, 데이터시각화

유 지 원(Ji-Won Yoo)

준회원



- 2019년 3월 ~ 현재 :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관심분야〉 : 불어불문학, 문화콘텐츠, 교육학, 데이터시각화,
데이터인문학

김 서 현(Seo-Hyeon Kim)

준회원



- 2019년 3월 ~ 현재 :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관심분야〉 : 불어불문학, 데이터인문학, 경영학

문 성 민(Seongmin Mun)

정회원



- 2021년 6월 : Université Paris
Nanterre Sciences du Langage
(전산언어학 박사)
- 2022년 11월 ~ 2025년 2월 : 아주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2025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전산언어학, 디지털인문학, 자연어처리, 통계
분석, 기계학습, 데이터시각화